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. 출장개요

출장목적	모건스탠리 Annual Asia Pacific Summit 참석					
장소	싱가포르(만다린 오리엔탈 호텔)					
출 장 자	소 속	직 급	성 명	담당업무	출 장 경 비	
					금 액	부담기관
	투자전략팀	3급	이규상	자산배분	1,548,047원	공단
	위탁운용팀	4급	박종철	해외투자	1,548,047원	공단
	계				3,096,094원	공단
동행기관명	-					

* 출장경비는 환율적용에 따라 최종정산시 변경될 수 있음.

2. 출장일정

월일시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출장자	세미나 내용	비고
10.16(화)	서울	싱가포르	이규상 박종철	-	KE643
10.17(수)	-	-		Macro Economics 전망 점검	
10.18(목)	-	-		sector별 시장 전망 점검	
10.19(금)	서울	싱가포르	이규상 박종철	sector별 시장 전망 점검	KE644

※ 출발시간이 22:35인 관계로 실제 한국 도착은 11월 10일(토) 05:45 이후임

3. 업무수행내용, 출장성과 및 시사점

(별첨 출장보고서 참조)

[별첨]

모건스탠리 아시아·태평양 Summit 출장 보고서

1 모건스탠리 아시아·태평양 Summit

☐ 개요

-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주최하는 행사

☐ 특징

- '02년부터 시작하여 11번째 되는 행사로 아시아·태평양 기업 및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모건스탠리의 거시경제환경 및 투자전망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는 행사

☐ 일시 및 장소

구 분	주요 내용
명 칭	11th Annual Asia Pacific Summit
일 시	2012.11.6 (화) ~ 11.9 (금)
장 소	싱가포르 Mandarin Oriental Hotel

☐ 주요 참가자

○ 주요 참가자

- 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주요 기업, 기관투자가 등
※ '12.11월 싱가포르 summit에는 270개 기업, 약 1천8백여명 참석

○ 주요 Speaker

- 필리핀 재무장관(Mr. Cesar V.Purisima), 미국 주지사(Tim Pawlenty), 미국 예일대 교수(Mr.Stephen S. Roach) 등 다양한 Speaker 구성

□ 컨퍼런스 일정

○ 주제

-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
- 미국 대선이후의 Fiscal Cliff 진행 전망
- 유럽은행의 리스크 전망 등

○ Key Speaker

구 분	Key Speaker
정 부	Mr. Cesar V.Purisima(필리핀 재무장관)
교 수	Mr.Stephen S. Roach(미국 예일대 교수)
정치인	Tim Pawlenty(미국 전 미네소타주지사)

2 주요 Agenda

□ 세계 거시경제 전망 : 애매한 상황에 갇힌 세계경제

- 세계 경제상황은 성장과 불황을 구분하는 경계국면에 빠져 있음
 - 개도국의 성장모델이 깨졌고
 - G3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게 남아있기 때문
- 대규모 통화공급은 경기후퇴 위험을 제한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
 - 이에 따른 위험은 전세계적인 Stagflation임
- 유럽의 회복에는 내적 경제 재조정, 은행과 재정연합과 같은 제도적 개혁, 정부에 대한 ECB의 안전망이 필요함
 - 다행히도 이 조건들이 진행 중임

○ 유럽위기는 CRIC순환을 나타내고 계속 나타남

- C : Crisis(위기)
- R : Response(정부의 대응)
- I : Improvement(상황의 개선)
- C : Complacency(시장의 안도)
- 작년 여름 Crisis였으며, ECB의 LTRO 정책으로 Response
올해 1분기 Improvement 국면에서 현재는 Complacency
국면인데 단기물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며 Crisis국
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

□ Global GDP 성장 : 평탄하지 않고 평균이하의 약한 성장

○ GDP 성장은 하락으로 방향을 수정

구 분	2011	2012E	2013E
Global	3.9%	3.1%	3.2%
US	1.8%	2.1%	1.4%
EM(개도국)	6.5%	4.9%	5.4%

○ 장애요인 1

- 부채감소 : 미국 소비자, 유럽은행, 유럽정부의 Deleveraging이
GDP성장의 장애요인

○ 장애요인 2

- 오랜 개도국의 성장모델 붕괴

구 분	구 모델	신 모델
China	수출/투자 주도	소비주도
India	소비주도	투자주도
Brazil/Russia	자원주도	균형생산형

○ 장애요인 3 : 미국,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 상존

□ 중앙은행들의 장애극복 노력

- 대규모 통화공급 정책 1차, 2차 시행
 - 전세계적인 과부채 상태
 - 대다수 선진국이 재정유지능력 이슈에 직면
 - 과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에도 장기이율을 장기간 낮게 유지하였음(1940~1951)
 -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를 모두 초과
→ Stagflation 우려

□ 국가별 차이 심화

-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GDP는 금융위기 이전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, PIIGS와 나머지 국가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
- 그러나, 경제적 재조정이 진행 중이며 주변국은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아일랜드, 스페인, 포르투갈은 이미 양호한 제품 수출을 보이고 있음
- 구조적 개혁은 결국 장기적 성장을 촉발할 것임

□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

- 유럽의 deleveraging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

□ 선거 후 미국에 대한 전망

- 선거에서 패한 롬니 진영의 전직 미네소타주지사인 Tim Pawlenty의 전망

- 하원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향후 6개월동안 부시 감세 종료, 민주당 추진의 세율인상안 등 많은 정책변화의 이슈가 생길 것이며, 민주당이 자신의 주장대로 쉽게 정책을 펴긴 어려울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함에 따라 재정절벽이슈가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

□ 재정절벽 관련 이자율 전망

- 재정절벽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은 '13.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예산이 있기 때문에 합의는 '13. 2월말에서 3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,
- 모건스탠리의 국채이자율 전망은 '13. 2월말~3월초까지 반등 후 완만한 하향세를 예상
- '11. 8월과 같은 신용등급 하향이슈 발생할 가능성 있음

□ Commodities 전망

- Crude Oil과 일부 농산물은 긍정적으로 전망
 - 모건스탠리의 Crude Oil 전망은 '12년 110불, '13년 115불
 - 농산물은 옥수수, 대두, 면화에 대해 긍정적 전망